

# IBKS FI Comment

## 프랑스 정치적 혼란에 대한 대처 필요

- 6월 30일 및 7월 7일에 걸친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금융시장 내 커지고 있는 혼란
-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지지율이 중도보수 성향의 여당인 르네상스보다 높은 국면
- 각 정당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며 글로벌 국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음
- 이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프랑스 금리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이미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 잔존
-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따른 금리 하락세에 시장이 집중한 데에 기인
- '22년 말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경우를 프랑스 정당이 학습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과열된 현 국면을 고려할 시 시장이 주의해야 할 것

### 갑자기 불거진 프랑스 정치적 혼란

6월 9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약 31.5%의 득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보수 성향의 르네상스가 크게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했으며, 6월 30일과 7월 7일에 걸쳐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하며 금융시장 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프랑스 내 자체적인 선거 시스템이 결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총선 결과를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직 RN의 지지율이 프랑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글로벌 국제 금리의 하방 경직성 예상

이러한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은 전반적인 글로벌 국제 금리의 하단을 막을 것이며 주된 요인은 재정적자 부담이 가시화될 수 있는 데에 기인한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에 채권시장은 안도했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 역시 리스크오프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프랑스와 다른 나라의 금리 스프레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즉, 프랑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자 부담이 벌써부터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재정적자 부담감을 시장이 이미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채권시장은 연준의 긴축 부담 완화에 가장 크게 집중을 했다. 프랑스 금리도 절대 레벨 자체는 하락한 바 있다. 시장이 하락 요인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 금리는 향후 프랑스의 조기 총선 전까지 재차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5월 31일 프랑스 신용등급을 이미 AA에서 AA-로 강등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데에 기인하며, 프랑스 여당의 지지를 뛰어넘는 RN, 혹은 좌파 연합으로 분류되는 신인민전선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 부담이 더 확대될 우려가 크다. 특히 RN의 경우 핵심 공약은 감세가 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년 연장을 철폐하며, 10만 유로의 무이자 대출 등이 이에 모두 포괄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 지난 '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경우를 프랑스 정치인들이 학습했더라도, 현재 과열되고 있는 정당들의 포퓰리즘에 시장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Fixed Income Analyst

권기중

02) 6915-5654

kjoong@ibks.com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미국 및 독일 대비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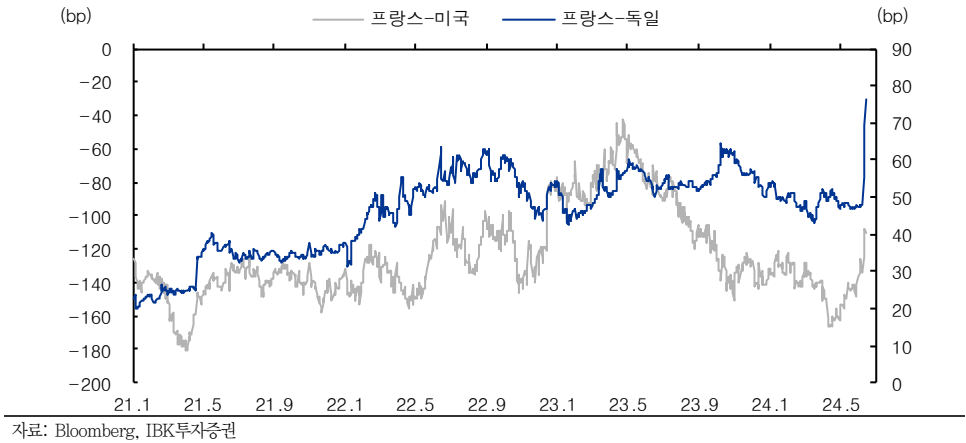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5월 CPI 발표 전(6월 11일) 대비 최근 주요국 국채 금리 변동폭,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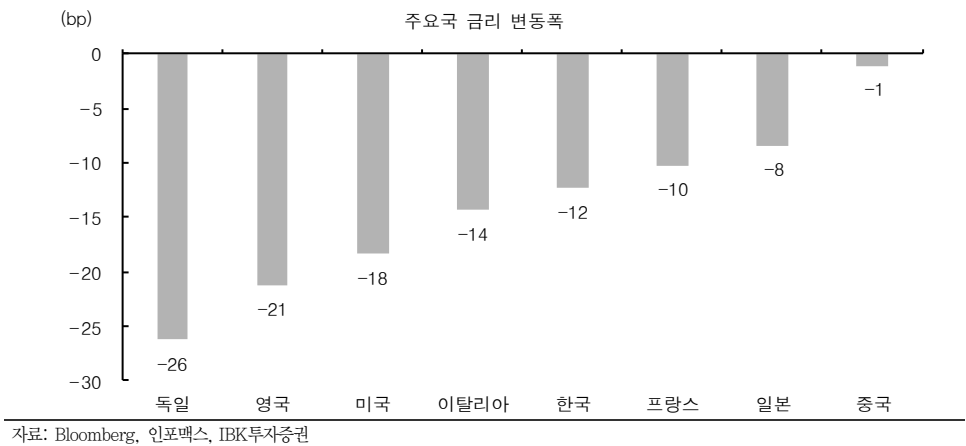


그림 3. 기준으로 작용하는 3%를 계속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재정적자(%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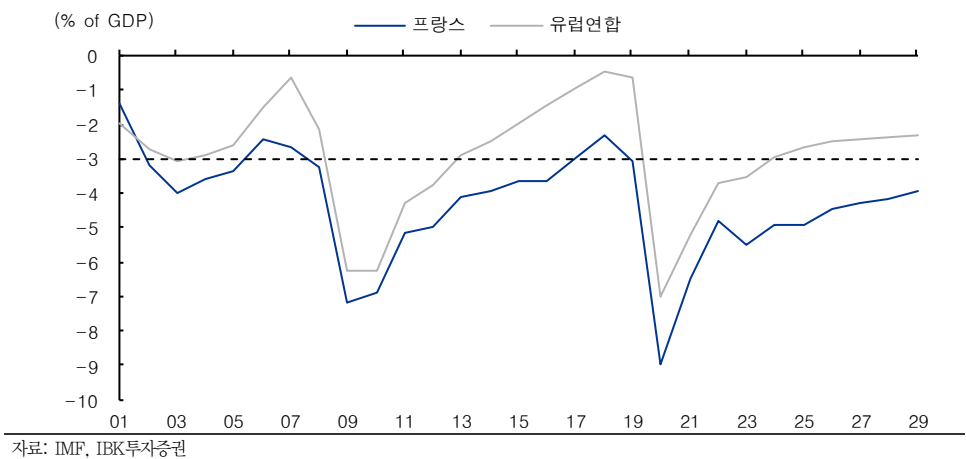


그림 4. '22년말 급등했던 영국 국채 금리를 고려할 시, 현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높음

